

보도시점 : 2024. 10. 1.(화) 11:00 이후(10. 2.(수) 조간) / 배포 : 2024. 10. 1.(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본격 시작, 한국형 고속철 차량 수출 성과 이어간다

-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13개국 32명 선발 ... 해외사업의 가교 역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투르크메니스탄(1), 키르기스스탄(1), 인도(1)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보 등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이 보유한 철도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등 국내기업과 연수생이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도 연수과정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 * 철도산업정보센터 누리집(<http://www.kric.go.kr>)에서 확인 가능
- '18년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거쳐 간 연수생은 총 21개국 136명이며, 자국의 최신 철도사업 동향 제공, 국내기업과 해외 발주기관 간 연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특히, 올해 우리기업과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 차량 계약**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과 598억원 규모의 **울란바토르 지하철 건설 감리 및 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몽골**의 경우, 연수과정이 시작된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수생을 배출*했다.

* 몽골: ('18) 2명 → ('19) 2명 → ('20) 1명 → ('21) 1명 → ('22) 2명 → ('23) 6명 → ('24) 4명
 우즈베키스탄: ('18) 2명 → ('19) 1명 → ('20) 1명 → ('21) 1명 → ('22) 2명 → ('23) 4명 → ('24) 4명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을 통해 형성된 해외 주요 발주기관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철도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해외 철도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철도국 철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4-201-3538)
		담당자	사무관	김강문 (044-201-3949)
<담당>	한국철도협회 수출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은미 (02-964-3995)
		담당자	차 장	안정은 (02-960-6923)



참고

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사업 개요

□ 교육개요

- (목적) 외국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부처(교통부, 철도청, 국영철도기업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철도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 국내기업의 해외 철도사업 수주 등을 지원하는 인적네트워크로 활용
- (과정) 국내에서 1학기(공통과목 15주), 2학기(전문과정 I 5주), 3학기(전문과정 II 15주) 이수 후, 4학기는 귀국하여 논문 작성·제출(15주 내)
- (연수기관) 우송대학교 / (기간) '24.9.1 ~ '25.8.31(12개월)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현황 】

구분	2018년 (1기)	2019년 (2기)	2020년 (3기)	2021년 (4기)	2022년 (5기)	2023년 (6기)	2024년 (7기)
동남아시아	6개국 13명 몽골(2) 미얀마(1) 베트남(3) 인도네시아(3) 라오스(2) 캄보디아(2)	7개국 12명 몽골(2) 미얀마(2) 베트남(2) 태국(1) 인도네시아(3) 라오스(1) 캄보디아(1)	6개국 12명 몽골(1) 미얀마(2) 베트남(1) 태국(1) 인도네시아(5) 필리핀(2)	4개국 8명 몽골(1) 인도네시아(5) 말레이시아(1) 인도(1)	5개국 11명 몽골(2) 미얀마(1) 인도네시아(6) 말레이시아(1) 인도(1)	3개국 15명 몽골(6) 인도네시아(5) 태국(4)	5개국 12명 몽골(4) 인도네시아(5) 말레이시아(1) 인도(1) 필리핀(1)
중앙아시아	5개국 9명 우즈베키스탄(2) 타지키스탄(1) 투르크메니스탄(1) 카자흐스탄(3) 키르기스스탄(2)	5개국 5명 우즈베키스탄(1) 타지키스탄(1) 투르크메니스탄(1)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2개국 2명 우즈베키스탄(1) 타지키스탄(1)	3개국 3명 우즈베키스탄(1) 타지키스탄(1) 카자흐스탄(1)	4개국 5명 우즈베키스탄(2) 타지키스탄(1)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3개국 7명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1) 키르기스스탄(2)	5개국 11명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키르기스스탄(1) 카자흐스탄(2) 투르크메니스탄(1)
아프리카	-	2개국 2명 이집트(1) 탄자니아(1)	1개국 2명 탄자니아(2)	2개국 5명 이집트(2) 탄자니아(3)	2개국 9명 이집트(4) 탄자니아(5)	2개국 7명 이집트(1) 탄자니아(6)	2개국 7명 이집트(2) 탄자니아(5)
중남미	-	-	1개국 1명 코스타리카(1)	1개국 1명 페루(1)	1개국 1명 페루(1)	1개국 3명 파라과이(3)	-
유럽·중동	-	1개국 1명 터키(1)	-	1개국 2명 터키(2)	-	-	1개국 2명 폴란드(2)
계	11개국 22명	15개국 20명	10개국 17명	11개국 19명	12개국 26명	9개국 32명	13개국 32명